

자동차산업

현대/기아차 미국 인센티브 하향세 지속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현대차 미국 3월 인센티브 \$2,501 (-13%, -\$374, 이하 YoY)

18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YoY 감소를 기록했다. 특히 지난 4Q18 신차가 출시된 싼타페 인센티브가 대당 \$2,017 감소하며, 전체 인센티브 하락을 견인했다. 올해 하반기 출시될 쏘나타, 제네시스 신차 출시를 통해 인센티브 하락 기조 유지될 전망이다.

주요 모델 인센티브 변동 폭: 아반떼 \$2,673 (+5%), 쏘나타 \$3,296 (+1%), 투싼 \$2,432 (-2%), 싼타페 \$1,935 (-51%)

기아차 미국 3월 인센티브 \$3,471 (-10%, \$387)

Sedan 및 MPV 신차 인센티브 감소가 두드러지며, 전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전체 평균 인센티브의 YoY 감소세가 기록했다. 텔루라이드는 \$2,990의 대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했으며, 참고로 E-segment 경쟁모델들의 인센티브는 \$5,000-6,000 수준이다.

주요 모델: K3 \$2,449 (-27%), K5 \$3,958 (-30%), 쏘울 \$1,941 (-16%), 스포티지 \$4,024 (+12%), 쏘렌토 \$5,635 (+7%)

전체 산업 대당 평균 인센티브 \$3,641 (-4% YoY)

전체 Sedan 시장 대당 평균 인센티브 \$3,271 (-9%), 전체 SUV/Pick-up 시장 대당 평균 인센티브 \$3,810 (-2%)로 시장 전반의 재고조정 노력이 유지되며 산업 인센티브 하향세가 지속됐다.

주요 브랜드: Toyota -1%, Honda +41%, Nissan -2%, GM -13%, Ford +0.2%, FCA -3%, BMW -2%, Mercedes +21%, VW +6%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